

# 일 지역 성인의 노화지식과 노인에 대한 성인식 및 성태도에 관한 연구

제남주, 양현주\*, 박미라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 A Study on the Aging Knowledge, Sexual Perception and Sexual Attitude about the Aged People in a Local Adults

Nam Joo Je, Hyun Joo Yang\*, Meera Park  
Department of Nursing, Changshi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일 지역 성인의 노화지식과 노인에 대한 성인식 및 성태도를 탐색하여 우리나라 노인에 대한 성인식 및 성태도를 확인하고, 노인에 대한 올바른 성인식 확립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B·U광역시, K도에 거주하는 20~59세 성인 34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2015년 6월 9일부터 8월 23일까지였고, 자료분석은 IBM SPSS WIN/21.0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노화지식은 12.12점, 노인에 대한 성인식은 2.99점, 노인에 대한 성태도는 4.04점이었다. 대상자의 노화지식과 노인에 대한 성인식( $r=.227, p<.001$ ), 노화지식과 노인에 대한 성태도( $r=.369, p<.001$ ), 노인에 대한 성인식과 성태도( $r=.299, p<.001$ )는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노화지식과 노인에 대한 성인식 및 성태도는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인에 대한 성인식 및 성태도 전환을 위해 노화지식 및 노인의 성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이 연령별에 따라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 explore correlations between aging knowledge, sexual perception and sexual attitude of aged people among adults, and (b) provide a database to develop an educational program to instill the right perception and sexual attitude of aged people in our society. The subjects were 340 adults aged 20-59 years living in K do, B and U cit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June 9, 2015 to August 23, 2015 and analyzed based on the means, percentages, t-tests,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using IBM SPSS 21.0. The subjects' score of aging knowledge was 12.12, sexual perception of aged people was 2.99, sexual attitude of aged people was 4.04.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aging knowledge and sexual perception of aged people ( $r=0.227, p<0.001$ ), aging knowledge and sexual attitude of aged people ( $r=0.369, p<0.001$ ), sexual perception of aged people and sexual attitude of aged people ( $r=0.299, p<0.001$ ).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systematic education about aging knowledge and sex of aged people by to change the perception and attitude of the elderly in our society.

**Keywords** : Aged, Attitude, Knowledge, Perception, Sexual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

수준의 향상 및 생활여건 개선으로 해마다 증가되고 있다. 2017년에는 전체 인구의 13.8%를 차지하며, 2030년 24.5%, 2040년 32.8%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추세이다 [1].

\*Corresponding Author : Hyun Joo Yang(Changshin University)

Tel: +82-55-250-3172 email: elijah7878@nate.com

Received August 7, 2017

Revised (1st September 21, 2017, 2nd October 17, 2017)

Accepted November 3, 2017

Published November 30, 2017

과거 농경시대의 노인은 경제적·사회적으로 안정된 지위에 있었으나, 사회변동 및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현대사회에는 무능력·무기력하고 비생산적인 사람으로 전락되었다[2]. 이로 인해 우리사회는 빈곤, 질병, 역할 상실, 소외 등의 노인문제가 발생하였고, 외로움, 고독감, 절망감으로 인한 노인자살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초래되었다.

전통적으로 유교사상에 익숙했던 과거의 우리사회는 노인을 성과는 무관한 존재로 인식하며, 노인에 대한 성에 대해 왜곡된 지식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3]. 사회가 서구화되고 개방화됨에 따라 노인에 대한 성인식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으며,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노인은 성적인 존재이고, 여성도 남성과 다를 바 없다고 보고하고 있어[4, 5] 우리사회의 노인에 대한 성인식도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사회의 대다수는 노인에 대한 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있어[4, 5, 7] 노인에 대한 성문제를 은폐하거나 음성화하여 성매매 같은 사회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7].

노인의 성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며[8], 성 관계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사회적 관계를 내포하는 개념으로 노년기에 상실되는 직업이나 사회적 관계를 대신하여 소외감을 해결해주는 삶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9]. 노인의 성생활은 그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유지에 도움이 되고[8], 삶의 중요한 활력소로 작용하여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끼게 한다. 또한 노인의 성은 노인의 행복을 추구하고 긍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요소이다. 선행연구에서 노인의 성생활이 그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10], 노화와 치매, 건망증 등의 진행을 억제하여 노년기 우울증이나 의욕저하 등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는[11, 12] 사회전반에 걸쳐 노년기 성에 대한 가족과 사회구성원의 인식전환이 매우 필요함을 나타낸다[13].

우리사회 성인의 노인에 관한 인식과 태도는 노인에 대한 국가의 정책을 설정하거나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들의 노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며, 향후 노인 정책설정에 중요지표로 활용될 것이다[14]. 그러므로 성인을 대상으로 이들이 생각하는 노인의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지금까지 노인의 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재가요양보호사[15], 간호사와 간호학생 등[16-18]의 노인을 돌보는 사람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2,3,7,19,20] 노인에 대한 성지식, 성수용 태도, 성교육 정도를 연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일 지역 성인의 노화지식, 노인에 대한 성인식과 성태도를 탐색하여 우리사회 노인에 대한 성인식 및 성수용 태도를 확인하고, 노인에 대한 올바른 성인식 확립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일 지역 성인의 노화지식과 노인에 대한 성인식 및 성태도 탐색을 통해 우리사회 노인에 대한 성인식 및 성수용 정도를 확인하고, 노인에 대한 올바른 성인식 및 성태도 확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연구대상자의 노화지식과 노인에 대한 성인식 및 성태도를 파악한다.
- 3) 연구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노화지식과 노인에 대한 성인식 및 성태도를 파악한다.
- 4) 연구대상자의 노화지식과 노인에 대한 성인식 및 성태도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일 지역 성인의 노화지식과 노인에 대한 성인식 및 성태도에 관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B·U광역시, K도에 거주하는 20~59세 성인 340명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 1) 본 연구를 이해하고 협조할 것을 동의한 자
- 2) 질문지 내용을 읽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 2.3 연구도구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일반적 특성과 노화지식, 노인에 대한 성인식과 성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2.3.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연령, 성별, 결혼여부, 학력, 종교, 직업, 월수입, 노인동거여부, 노인부양여부, 노인의 성에 대한 생각/고민여부, 노인의 성교육 경험여부, 노인의 성전문교육 필요성 등 총 12문항으로 측정하였다.

### 2.3.2 노화지식

노화지식은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편견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Palmore [21]에 의해 처음 개발되고, 1998년에 수정·보완된 True-False version의 Fact On Aging Quiz Part 1(FAQ 1)를 Lim 등[18]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노화지식은 신체·생리적 영역 11문항, 심리적 영역 6문항, 사회·가족적 영역 8문항의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질문에 대한 응답은 ‘예’, ‘아니오’, ‘모른다’로 구성되었다. ‘정답’은 1점 ‘오답 및 모른다’는 0점으로 측정하였다. 점수는 0점-2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화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KR-20(Kuder-Richardson Formula 20)=.55이었다.

### 2.3.3 노인에 대한 성인식

노인에 대한 성인식은 Kim [22]이 일반인의 성생활 인식도 조사도구를 Jung [15]이 ‘노인의 성인식’ 척도로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노인에 대한 성인식에 대해 성생활 지표, 성생활 만족, 성적 능력 유지, 성생활 유지, 성 관심, 폐경 후 성관계, 성관계 중요성, 성행위 지표, 사별 후 재혼, 성교육 활성화, 성교육 느낌, 성적 대화 한계, 성적 욕구정도를 측정하는 총 13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자주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부정형 문항은 역 채점하였다. 점수는 13점-6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의 성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Jung [15]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71$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72$ 이었다.

### 2.3.4 노인에 대한 성태도

노인에 대한 성태도는 White [23]가 개발한 “Aging Sexual Knowledge and Attitude Scale(ASKAS)”의 도구를 Korea Gerontology Forum [24]에서 발행한 노년학 척도집의 한국어 번역본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노인에 대한 성수용 태도와 관련된 ‘성적흥미, 성적관심,

성적활동 지지, 남녀구별, 권리보호, 성적관심, 성관계에 대한 생각, 방관, 항의, 성 활동 허용, 성적유회, 성기능 변화, 성적활동 규제, 성교육 과정, 종사자 교육, 남성노인의 자위, 여성노인의 자위, 노인의 독방제공, 직원의 성교육, 입소자의 성적활동, 사회적 교류, 자위행위의 해로움, 개인생활 보장, 성관계 예방, 혼인 외 성관계의 부도덕함 등의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7점까지의 7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부정형 문항은 역 채점하였다. 점수는 26점-182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성태도가 개방적·긍정적임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7$ 이었고, Shin 등[25]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72$ 였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2$ 이었다.

## 2.4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자료수집은 2015년 6월 9일부터 8월 23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고, 연구목적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서명한 20~59세 성인 355명을 편의 표집 하였다. 표본 수 결정은 G\*power 3.10 프로그램 [26]을 이용하여 효과 크기(effect size) .25(중간), 유의수준( $\alpha$ ) .05, 통계적 검정력(1- $\beta$ ) .95로 산출한 결과, 적정표본 크기의 최소 인원은 324명으로 산출되었으나 탈락률을 고려하여 355명을 표집 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본 연구에 참여하기를 서면으로 동의한 대상자들에 한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회수된 자료 중 응답이 불성실한 15부를 제외한 340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 2.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WIN/21.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2) 연구대상자의 노화지식과 노인에 대한 성인식 및 성태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화지식과 노인에 대한 성인식 및 성태도는 t-test, ANOVA,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 4) 연구대상자의 노화지식과 노인에 대한 성인식 및

성태도와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2.6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일개 도시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제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223명(65.6%), 남성이 117명(34.4%)으로 대상자의 대부분이 여성이었으며, 대상자의 연령은 20대, 30대, 40대, 50대 모두 85명(25.0%)으로 연령별로 고르게 분포하였다. 결혼 상태는 기혼이 203명(59.7%), 미혼이 137명(40.3%)이었고, 최종학력은 고졸이 137명(40.3%), 대학이상 졸업한 경우가 89명(26.2%), 전문대졸 79명(23.2%), 중졸이하 35명(10.3%)이었다. 종교는 무교가 147명(43.2%), 불교 92명(27.1%), 기독교 63명(18.5%), 천주교 38명(11.2%)순이었고, 직업은 생산기능직이 119명(35.0%), 무직 59명(17.3%), 서비스직 42명(12.3%), 학생 39명(11.5%), 자영업자 38명(11.2%), 전문직 35명(10.3%), 기타 8명(2.4%) 순이었다. 월수입은 100~200만원 미만 114명(33.5%), 없음 86명(25.3%), 200~300만원 미만 67명(19.7%), 300~400만원 미만 31명(9.1%), 100만원 미만 24명(7.4%), 400만원이상 18명(5.3%)순이었다. 노년과의 동거경험에 대해서는 동거경험이 없는 경우가 218명(64.1%), 동거경험이 있는 경우가 122명(35.9%)이었고, 노인을 부양한 경험에 대해서는 부양경험이 없는 경우가 273명(80.3%), 부양경험이 있는 경우가 67명(19.7%)이었다. 노인의 성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없다'가 320명(94.1%), '있다'가 20명(5.9%)이었고, 노인에 대한 성교육 경험은 받은 적 '없다'가 301명(88.5%), '있다'가 39명(11.5%)으로 나타나, 대부분 노인의 성에 대해 생각한 적이 없거나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성에 대한 전문교육의 필요성은 '필요하다'가 153명(45.0%), '보통이다' 108명(31.8%), '필요하지 않다'가 44명(12.9%), '전혀 필요하지 않다'가 12명(3.5%), '매우 필요하다'가 23

명(6.8%)순으로 나타나 응답자 중 대부분이 노인의 성에 대한 전문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지하였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340)

Variables	Categories	n(%)	M±SD		
Age (year)	20~29	85(25.0%)	38.77 ±11.73		
	30~39	85(25.0%)			
	40~49	85(25.0%)			
	50~59	85(25.0%)			
Gender	Male	117(34.4%)			
	Female	223(65.6%)			
Marital status	Single	137(40.3%)			
	Married	203(59.7%)			
Education	≤Middle School	35(10.3%)			
	High school	137(40.3%)			
	College	79(23.2%)			
	≥Univesity	89(26.2%)			
Religion	None	147(43.2%)			
	Protestant	63(18.5%)			
	Catholic	38(11.2%)			
	Buddhism	92(27.1%)			
Occupation	Unemployed	59(17.3%)			
	Students	39(11.5%)			
	Self-employed	38(11.2%)			
	Service	42(12.3%)			
	Professionals	35(10.3%)			
	Production function	119(35.0%)			
	Others	8( 2.4%)			
	Monthly income (10,000 won)	None		86(25.3%)	
		<100		24( 7.1%)	
		100~199		114(33.5%)	
200~299		67(19.7%)			
300~399		31( 9.1%)			
≥400	18( 5.3%)				
Living with the aged people	Yes	122(35.9%)			
	No	218(64.1%)			
Supporting the aged people	Yes	67(19.7%)			
	No	273(80.3%)			
Thoughts about the sex of the aged people/ concerns	Yes	20( 5.9%)			
	No	320(94.1%)			
Sex education experience about the aged people	Yes	39(11.5%)			
	No	301(88.5%)			
Necessity of professional sex education about the aged people	Not necessary at all	12( 3.5%)			
	Not necessary	44(12.9%)			
	Usually	108(31.8%)			
	Need	153(45.0%)			
	Very necessary	23( 6.8%)			

**Table 2.** Response distribution of aging knowledge by item (N=340)

Contents	Correct n(%)	Incorrect n(%)	Do not know n(%)
1. The majority of old people (past age 65) are senile (i.e., defective memory, disoriented, or demented)	240 (60.0)	105 (30.9)	31 (9.1)
<b>2. All five senses(sight, hearing, taste, touch, and smell) tend to decline in old age</b>	302 (88.8)	25 (7.4)	13 (3.8)
3. Most old people have no interest in, or capacity for, sexual relations	85 (25.0)	209 (61.5)	46 (13.5)
<b>4. Lung capacity tends to decline in old age</b>	292 (85.9)	33 (9.7)	15 (4.4)
5. The majority of old people feel miserable most of the time	125 (36.8)	158 (46.5)	57 (16.8)
<b>6. Physical strength tends to decline in old age</b>	287 (84.4)	39 (11.5)	14 (4.1)
7. At least 5% of the aged are living in long-stay institutions (i.e., nursing homes, mental hospitals, aged people residential facilities, etc.)	208 (61.2)	47 (13.8)	85 (25.0)
<b>8. Aged drivers have fewer accidents per person than drivers under age 65</b>	93 (27.4)	108 (31.8)	139 (40.9)
9. Most older workers cannot work as effectively as younger workers	121 (35.6)	159 (46.8)	60 (17.6)
<b>10. About 50% of the aged are healthy enough to carry out their normal activities</b>	175 (51.5)	109 (32.1)	56 (16.5)
11. Most old people are set in their ways and unable to change	98 (28.8)	219 (64.4)	23 (6.8)
<b>12. Old people usually take longer to learn something new</b>	250 (73.5)	67 (19.7)	23 (6.8)
13. It is almost impossible for most old people to learn something new	164 (48.2)	136 (40.0)	40 (11.8)
<b>14. The reaction time of most old people tends to be slower than reaction time of younger people</b>	284 (83.5)	41 (12.1)	15 (4.4)
15. In general, most old people are pretty much alike	183 (53.8)	122 (35.9)	35 (10.3)
<b>16. The majority of old people are seldom bored</b>	65 (19.1)	180 (52.9)	95 (27.9)
17. The majority of old people are socially isolated and lonely	159 (46.8)	137 (40.3)	44 (12.9)
<b>18. Older workers have fewer accidents than younger workers</b>	123 (36.2)	91 (26.8)	126 (37.1)
<b>19. Over 10% of the US population are now age 65 or over</b>	34 (10.0)	207 (60.9)	99 (29.1)
<b>20. Most medical practitioners tend to give low priority to the aged</b>	135 (39.7)	88 (25.9)	117 (34.4)
21. The majority of older people have incomes below the poverty level (as defined by the federal government)	165 (48.5)	94 (27.6)	81 (23.8)
<b>22. The majority of old people are working or would like to have some kind of work to do (including housework and volunteer work)</b>	241 (70.9)	48 (14.1)	51 (15.0)
23. Older people tend to become more religious as they age	191 (56.2)	73 (21.5)	76 (22.4)
<b>24. The majority of old people are seldom irritated or angry</b>	104 (30.6)	184 (54.1)	52 (15.3)
25. The health and socioeconomic status of older people (compared to younger people) in the year 2016 will be almost the same as today or worse.	160 (47.1)	104 (30.6)	76 (22.4)
<b>Correct answers(%)</b>	<b>48.4</b>	<b>Min-Max</b>	<b>16-84</b>
Average/SD	12.12±3.27	Min-Max	4-21

A **boldly marked question 'Yes'** is the correct answer. The other question 'no' is the correct answer.

### 3.2 대상자의 노화지식

대상자의 노화지식에 대한 정답률은 Table 2와 같다. 노화지식은 평균 12.12±3.27점으로 나타났으며 최고점은 21점이었고, 최저점은 4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대상자의 정답률이 가장 높은 문항은 “나이가 들면서 5가지 감각은 감소되는 경향이 있다(정답률 88.8%)”, “나이가 들면서 폐활량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정답률 85.9%)”, “체력은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정답률 84.4%)” 순으로 나타났다.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항은 “노인 대부분은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오답률 64.4%)”, “대부분의 노인은 성관계에 대한 관심도 없고, 능력도 없다(오답률 61.5%)”, “현재 인구의 10% 이상이 65세 또는 그 이상이다(오답률 60.9%)”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노화지식에 대한 각 범주별 정답률은 Table 3과 같다. 척도에 포함된 전체 문항을 신체·생리적 영역(1, 2, 3, 4, 6, 8, 9, 10, 12, 14, 18번), 심리적인 영역(5, 11, 13, 16, 23, 24번), 사회·가족적 영역(7, 15, 17, 19, 20, 21, 22, 25번)의 범주로 분류한 결과 신체·생리적 영역의 정답률 (60.9%)에 비해 심리적 영역의 정답률(37.0%)과 사회·가족적 영역의 정답률(39.9%)이 낮게 측정되었다 [Table 3].

**Table 3.**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for each category of aging knowledge (N=340)

Category	Correct answers(%)	Min-Max(%)
Physical · Physiological area	60.9	9.1-100
Psychological area	37.0	0-100
Social · Family area	39.9	0-87.5

노화지식은 Palmore [21]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세 가지 편견점수(부정적 편견점수, 긍정적 편견점수, 순 편견점수)로 계산하였다. 부정적인 편견점수는 틀리게 답한 부정적인 편견문항(1, 3, 5, 7, 9, 10, 11, 13, 16, 17, 18, 21, 22, 24, 25번)의 비율, 긍정적인 편견점수는 틀리게 대답한 긍정적인 편견문항(2, 4, 6, 12, 14번)의 비율을 말하여, 순 편견점수는 긍정적인 편견점수에서 부정적인 편견점수를 뺀 점수이다. Palmore [21]에 의하면 순 편견점수가 양수이면 긍정적인 편견, 음수이면 부정적인 편견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순 편견점수가

±20% 범위 내에 있으면 편견점수가 중립적임을 의미한다. 대상자의 편견점수는 Table 4와 같다. 긍정적 편견 점수는 12.0이며, 부정적 편견 점수는 40.6, 순 편견점수는 -28.6으로 대상자의 노화에 관한 지식정도는 부정적 편견이 심한 것을 알 수 있었다[Table 4].

**Table 4.** Prejudice bias score on the aging knowledge (N=340)

Positive bias error rate(%) pro-errors (a)	Negative bias error rate(%) anti-errors (b)	Net bias score (a-b)
12.0	40.6	-28.6

### 3.3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성인식

**Table 5.** Sexual perception scale about the aged (N=340)

Items	M±SD	Min-Max
1. I think it is wise for the aged people to talk to someone about the sex life.	3.47±0.88	1-5
2. It is difficult for the aged people to get peace of mind if they are not satisfied with sex life.	3.06±0.91	1-5
3. The aged people often have sex to maintain their sexual abilities at age.	3.02±0.91	1-5
4. The sexual life of an aged person is necessary when he is young, but not when he is old.*	2.35±0.92	1-4
5. As an aged person, interest in sex will not diminish.	3.10±1.04	1-5
6. Aged people after menopause think that it is better not to have sexual relations.*	2.46±0.90	1-5
7. The sexual relations of the aged people are considered to be an important part of the individual's life regardless of age.	3.52±0.93	1-5
8. I feel rejected when I watch broadcasting expressing the sexual behavior of the aged people.*	2.84±1.00	1-5
9. I think it is desirable to remarry if an aged people person is widowed.	3.35±0.85	1-5
10. Sex education about the aged people needs to be socially activated.	3.29±0.96	1-5
11. I felt shame when I got sex education about the aged people.*	2.58±0.97	1-5
12. I feel my limitations due to lack of skills in conversation about sexual behavior or sexual counseling of the aged people.*	2.77±0.81	1-5
13. The aged people also have a sexual need when they see pornography.	3.10±1.05	1-5
Average / SD	2.99±0.36	1.92-3.85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성인식은 Table 5와 같다. 노인에 대한 성인식 평균은 2.99점±0.36이며, 최고점은 3.85점, 최저점은 1.92점이었다[Table 5].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성인식이 높음을 의미하며, 문항의 평균점수가 높은 문항은 “노인은 성 관계는 나이와 상관없이 개인의 삶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3.52점)”, “노인이라도 사별한 경우 재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3.35점)”, “노인의 성교육을 사회적으로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3.29점) 순이었다. 평균점수가 낮은 문항은 “노인의 성 생활은 젊었을 때나 필요한 것이지 늙으면 필요 없다(2.35점)”, “갱년기 이후의 노인들은 성 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2.46점)”, “노인의 성교육을 받을 때 나는 부끄러움을 느꼈다(2.58점)” 순이었다[Table 5].

### 3.4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성태도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성태도는 Table 6과 같다. 노인의 성에 대한 태도는 평균 4.04±0.74점이었고, 최고점은 6.23점, 최저점은 2.65점 이었다[Table 6].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의 성에 대한 태도가 개방적·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문항별 점수가 가장 높은 문항은 “만약 양로원에 입소한 노인 간에 성적 활동이 발생한다면 나는 관리자에게 불평할 것이다(5.07점)”, “나는 노인의 성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은 모두 알고 있다(4.84점)”, “간호양로원 같은 기관들은 여성노인과 남성노인간의 사회적 교류를 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4.78점).” 순으로 나타났다. 점수가 낮은 문항은 “남성노인의 자위행위는 허용될 만한 성적활동이다(3.04점)”, “노인의 성기능 변화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3.09점)”, “여성노인의 자위행위는 허용될 만한 성적활동이다(3.11점)”순으로 나타났다[Table 6].

### 3.5 대상자의 노화지식과 노인에 대한 성인식 및 성태도와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노화지식과 노인에 대한 성인식 및 성태도와의 상관관계는 Table 7과 같다. 노화지식과 노인에 대한 성인식( $r=.227, p<.001$ ), 노화지식과 노인에 대한 성태도( $r=.369, p<.001$ ), 노인에 대한 성인식과 성태도( $r=.299, p<.001$ )는 순 상관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대상자의 노화지식이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성인식 정도가 높고, 노화지식과 노인에 대한 성인식 정도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성태도가 개방적·허용적임을 알 수 있었다 [Table 7].

**Table 6.** Sexual attitude scale about the aged (N=340)

Items	M±SD	Min-Max
1. Aged people have little interest in sexuality.	4.66±1.31	1-7
2. An aged person who shows sexual interest brings disgrace to himself/herself.	4.53±1.50	1-7
3. Institutions, such as nursing homes, ought not to encourage or support sexual activity of any sort in their residents.	4.28±1.48	1-7
4. Male and female residents of nursing homes, ought not to live on separate floors or separate wings of the nursing home.	3.63±1.70	1-7
5. Nursing homes have no obligation to provide adequate privacy for residents who desire to be alone, either by themselves or as a couple.	4.48±1.47	1-7
6. As one becomes older (say, past 65) interest in sexuality inevitably disappears.	4.30±1.56	1-7
7-9 If a relative of mine, living in a nursing home, was to have a sexual relationship with another resident I would :	7. Complain to the management.	4.27±1.46 1-7
	8. Move my relative from this institution.	4.32±1.46 1-7
	9. Stay out of it as it is not my concern.	4.59±1.42 1-7
10. If I knew that a particular nursing home permitted and supported sexual activity in residents who desired such, I would not place a relative in that nursing home.	3.55±1.55	1-7
11. It is immoral for order persons to engage in recreational sex.	4.68±1.51	1-7
12. I would like to know more about the changes in sexual functioning in older years.	3.09±1.76	1-7
13. I feel I know all I need to know about sexuality in the aged.	4.84±1.32	1-7
14. I would complain to the management if I knew of sexual activity between any residents of a nursing home.	5.07±1.63	1-7
15. I would support sex education courses for aged residents of nursing homes.	3.52±2.35	1-7
16. I would support sex education courses for the staff of nursing homes.	3.64±2.42	1-7
17. Masturbation is an acceptable sexual activity for older males.	3.04±1.82	1-7
18. Masturbation is an acceptable sexual activity for older females	3.11±1.82	1-7
19. Institutions, such as nursing homes, ought to provide large enough beds for couples who desire such to sleep together.	3.25±2.17	1-7
20. Staff of nursing homes ought to be trained or educated with regard to sexuality in the aged and/or disabled.	3.91±2.41	1-7
21. Residents of nursing homes ought not to engage in sexual activity of any sort.	4.78±1.49	1-7
22. Institutions, such as nursing homes, should provide opportunities for the social interaction of men and women.	4.78±1.32	1-7
23. Masturbation is harmful and ought to be avoided.	4.47±1.51	1-7

24. Institutions, such as nursing homes, should provide privacy such as to allow residents to engage in sexual behavior without fear of intrusion or observation.	3.33±2.07	1-7
25. If family members object to a widowed relative engaging in sexual relations with another resident of a nursing home, it is the obligation of the management and staff to make certain that such sexual activity is prevented.	3.27±1.45	1-7
26. Sexual relations outside the context of marriage are always wrong.	3.72±1.71	1-7
Average / SD	4.04±0.74	2.65-6.23

**Table 7.** Correlation between aging knowledge, sexual perception and sexual attitudes (N=340)

	Aging knowledge	Sexual perception	Sexual attitudes
	<i>r</i> ( <i>p</i> )		
Aging knowledge	1		
Sexual perception	.227***	1	
Sexual attitudes	.369***	.299***	1

\*  $p < .05$ , \*\*  $p < .01$ , \*\*\*  $p < .001$

### 3.6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화지식과 노인에 대한 성인식 및 성태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화지식과 노인에 대한 성인식 및 성태도의 차이는 Table 8과 같다[Table 8]. 노화지식은 연령( $F=4.953, p=.002$ ), 결혼상태( $t=-2.160, p=.032$ ), 최종 학력( $F=2.858, p=.037$ ), 노인의 성 전문교육에 대한 필요성( $F=9.837, p<.001$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 결과 노화지식은 연령과 성 전문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50~59세 연령의 노화지식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0~39세, 20~29세 순이었으며, 노인에 대한 성 전문교육을 매우 필요한 것으로 인식할수록 노화지식이 높았다. 노인에 대한 성인식은 최종 학력( $F=3.005, p=.031$ ), 종교( $F=2.788, p=.041$ ), 노인의 성 전문교육에 대한 필요성( $F=10.231, p<.001$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 결과 노인에 대한 성인식은 학력과 성 전문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졸자가 고졸보다, 노인에 대한 성 전문교육을 매우 필요한 것으로 인식할수록 노인에 대한 성인식이 높았다. 노인에 대한 성태도는 성별( $t=3.355, p<.001$ ), 연령( $F=3.016, p=.030$ ), 결혼상태

( $t=2.814, p=.005$ ), 종교( $F=3.526, p=.015$ ), 노인의 성 생 각/고민( $t=3.363, p<.001$ ), 노인 성 교육경험( $t=2.839, p=.005$ ), 노인의 성 전문교육에 대한 필요성( $F=18.660, p<.001$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분석 결과 노인에 대한 성태도는 연령과 종교, 성 전문교

육에 대한 필요성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0~29세 연 령이 50~59세 연령층보다, 천주교가 불교보다 개방 적·허용적인 성태도를 나타내었으며, 노인에 대한 성 전문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매우 필요한 것으로 인식할수 록 노인에 대한 성태도가 개방적·허용적이었다[Table 8].

**Table 8.** Difference of aging knowledge, sexual perception and sexual attitud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340)

Variables	Categories	Aging knowledge		Sexual perception		Sexual attitudes	
		M±SD	t/F Scheffe's	M±SD	t/F Scheffe's	M±SD	t/F Scheffe's
Gender	Male	12.23±2.89	0.450	2.97±0.36	-0.857	4.23±0.83	3.355***
	Female	12.06±3.45		3.00±0.35		3.95±0.67	
Age (year)	20-29 <sup>a</sup>	11.48±2.94 <sup>a</sup>	4.953*	3.06±0.32	1.328	4.22±0.78 <sup>a</sup>	3.016*
	30-39 <sup>b</sup>	11.55±2.82 <sup>b</sup>	a<b<d	2.98±0.31		4.02±0.72 <sup>b</sup>	a>d
	40-49 <sup>c</sup>	12.31±3.61 <sup>c</sup>		2.97±0.37		4.05±0.77 <sup>c</sup>	
	50-59 <sup>d</sup>	13.14±3.40 <sup>d</sup>		2.96±0.41		3.89±0.67 <sup>d</sup>	
Marital status	Single	11.66±2.90	-2.160*	3.02±0.33	1.261	4.18±0.78	2.814*
	Married	12.43±3.46		2.97±0.37		3.95±0.70	
Education	≤Middle School <sup>a</sup>	13.29±4.16	2.858*	3.02±0.38 <sup>a</sup>	3.005*	3.95±0.74	2.392
	High school <sup>b</sup>	11.66±3.12		2.93±0.38 <sup>b</sup>	b<d	3.98±0.73	
	College <sup>c</sup>	11.97±3.15		3.00±0.34 <sup>c</sup>		3.98±0.72	
	≥Univesity <sup>d</sup>	12.49±3.10		3.07±0.31 <sup>d</sup>		4.22±0.76	
Religion	None <sup>a</sup>	11.77±3.14	2.331	2.96±0.36	2.788*	4.05±0.74 <sup>a</sup>	3.526*
	Protestant <sup>b</sup>	12.62±3.01		3.01±0.34		3.98±0.73 <sup>b</sup>	c>d
	Catholic <sup>c</sup>	13.11±3.51		3.14±0.30		4.39±0.86 <sup>c</sup>	
	Buddhism <sup>d</sup>	11.93±3.45		2.96±0.38		3.93±0.66 <sup>d</sup>	
Occupation	Unemployed	12.41±3.48	0.865	3.01±0.43	1.042	3.84±0.61	1.296
	Students	11.31±2.98		2.97±0.32		4.14±0.66	
	Self-employed	12.29±2.61		2.86±0.40		3.98±0.69	
	Service	12.33±2.74		3.00±0.27		4.14±0.79	
	Professionals	11.43±2.69		3.01±0.32		4.06±0.70	
	Production Function	12.29±3.73		3.02±0.34		4.07±0.82	
	Others	12.63±3.20		3.03±0.44		4.38±0.86	
	Monthly income (10,000 won)	None	12.04±3.50	1.316	3.00±0.41	0.552	3.94±0.68
<100	11.68±3.02		3.06±0.25		4.04±0.76		
100-199	11.96±3.19		2.97±0.32		4.03±0.70		
200-299	12.16±3.28		3.03±0.35		4.20±0.84		
300-399	13.48±3.30		2.95±0.39		4.00±0.84		
≥400	11.67±2.54		2.93±0.39		4.11±0.66		
Living with the aged people	Yes	11.93±2.72	-0.785	2.98±0.34	-0.386	4.06±0.74	0.366
	No	12.22±3.54		3.00±0.37		4.03±0.75	
Supporting the aged people	Yes	11.78±2.92	-0.962	2.99±0.36	-0.053	3.95±0.67	-1.093
	No	12.21±3.34		2.99±0.36		4.06±0.76	
Thoughts about the sex of the aged people/ concerns	Yes	12.70±2.99	0.816	3.05±0.24	0.768	4.58±0.69	3.363***
	No	12.08±3.28		2.99±0.36		4.01±0.73	
Sex education experience about the aged people	Yes	12.90±4.16	1.609	3.03±0.33	0.728	4.35±0.98	2.839*
	No	12.02±3.12		2.99±0.36		4.00±0.70	
Necessity of professional sex education about the aged people	Not necessary at all <sup>a</sup>	8.40±2.63 <sup>a</sup>	9.837***	2.80±0.44 <sup>a</sup>	10.231***	3.24±0.31 <sup>a</sup>	18.660***
	Not necessary <sup>b</sup>	10.36±3.11 <sup>b</sup>	a<c<d<e	2.75±0.40 <sup>b</sup>	b<c<d<e	3.72±0.62 <sup>b</sup>	a<b<c<d<e
	Usually <sup>c</sup>	11.99±3.09 <sup>c</sup>		2.99±0.35 <sup>c</sup>		3.92±0.63 <sup>c</sup>	
	Need <sup>d</sup>	12.81±3.19 <sup>d</sup>		3.05±0.31 <sup>d</sup>		4.13±0.71 <sup>d</sup>	
Very necessary <sup>e</sup>	13.22±2.71 <sup>e</sup>		3.23±0.28 <sup>e</sup>		4.99±0.80 <sup>e</sup>		

\*  $p<.05$ , \*\*  $p<.01$ , \*\*\*  $p<.001$



#### 4. 논의

본 연구는 일 지역 성인의 노화지식과 노인에 대한 성인식 및 성태도 탐색을 통해 우리사회 노인에 대한 성인식 및 성태도 수용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노화지식은 12.12점(정답률 48.4%)으로 간호대학생의 노화지식 12.50점(정답률 50.0%)[27]과 간호사의 노화지식 13.10점(정답률 52.4%)[18]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 대상자가 학부과정에서 노인관련 교과목을 수강했거나 임상에서 노인을 직·간접적으로 간호한 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 및 간호사 집단보다 노인에 대한 교육의 기회 및 노인과의 접촉경험이 거의 없거나 부족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Palmore [28]의 연구에서도 간호사 집단의 노화지식은 대학생 및 고등학생의 노화지식보다 높았으며, 이는 노인에 관한 교육정도 및 노인과의 접촉정도가 노화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대상자의 노화지식에 대한 각 범주별 정답률은 신체·생리적 영역의 정답률이 60.9%인 반면, 사회·가족적 영역의 정답률은 39.9%, 심리적 영역의 정답률은 37.0%로 낮았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Lim 등[18]의 연구에서도 신체·생리적 영역의 정답률은 70.3%, 사회·가족적 영역의 정답률 40.3%, 심리적 영역의 정답률이 35.6%인 것으로 나타나, 학부과정에서 노인에 관한 교육을 받았던 간호사 집단도 노화지식 중 심리적 영역 및 사회·가족적 영역의 지식수준은 신체·생리적 영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노화지식에 대한 편견정도는 긍정적 편견 점수가 12.0, 부정적 편견 점수 40.6, 순 편견 점수 -28.6으로 나타나 본 연구대상자의 노화지식에 대한 편견은 부정적 편견이 심한 정도임을 알 수 있었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Lim [18]의 연구에서도 노화지식에 관한 편견정도는 -28.35로 나타나 노인에 관한 부정적 편견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노인과의 접촉경험이 적었던 의료인에게도 나타나는 우리사회의 보편적 현상임을 확인할 수 있어, 노인에 관한 교육 부족과 노인과의 접촉경험 부족은 노화지식의 부족 및 노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사회 노인에 관한 부정적 편견 개선을 위해서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학생 및 일반대중에게도 노인에 관한 교육의 수강 기회를 늘리고 노인과의 긍정적인 접촉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교육효과 증대를 위해서는 이론뿐만 아니라 노인과의 긍정적인 경험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표준교육 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인식의 전환은 단회성의 학습으로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므로 노인에 관한 교육제공은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형태로 제공하되, 성장발달 단계를 고려한 연령별 맞춤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화지식은 연령( $F=4.953, p=.002$ ), 결혼상태( $t=-2.160, p=.030$ ), 최종 학력( $F=2.858, p=.037$ ), 노인의 성 전문교육에 대한 필요성( $F=9.837, p<.001$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노화지식과 노인에 대한 성 지식을 연구한 사례가 거의 없어 다른 연구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우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Yang과 Jung [17]의 연구에서 기혼( $t=-2.276, p=.024$ )이고 노인과 관련된 근무지에서 근무( $t=4.240, p<.001$ )하고 임상경력이 많으며( $F=5.294, p=.006$ ), 노인의 성 전문교육에 대한 필요성( $F=13.140, p<.001$ )을 높게 인지할수록 노화지식이 높다는 연구결과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나, 연령과 학력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Yang과 Jung [17]의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본 연구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자 간의 차이 때문으로 간호사 집단은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일정 시간 노인에 관한 교육을 제공받는 표준화된 간호교육 과정을 거친 비교적 동질한 특성을 가진 전문직 집단이나, 본 연구대상자는 다양한 학력과 노인에 관한 교육 및 접촉경험이 거의 없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화지식의 차이 확인을 위해 동일 집단을 대상으로 한 추후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성인식은 최종 학력( $F=3.005, p=.031$ ), 종교( $F=2.788, p=.041$ ), 노인의 성 전문교육에 대한 필요성( $F=10.231, p<.001$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시설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Jung [15]의 연구에서는 결혼 상태와 연령이 노인에 대한 성인식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Park과 Jung [30]의 연구에서는 성교육이 노인에 대한 성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 $t=3.816, p<.001$ )로 나타나 노인에 대한 성인식 개선에 노인에 관한 성교육이 필수적으로 제

공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성태도는 성별( $t=3.355, p<.001$ ), 연령( $F=3.016, p=.030$ ), 결혼상태( $t=2.814, p=.005$ ), 종교( $F=3.526, p=.015$ ), 노인의 성 생각/고민( $t=3.363, p<.001$ ), 노인 성 교육경험( $t=2.839, p=.005$ ), 노인의 성 전문교육에 대한 필요성( $F=18.660, p<.001$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높을수록 성태도가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것( $F=9.475, p<.001$ )으로 나타난 Yang과 Jung [17]의 연구결과와 일부 유사하였고, 남성이 여성보다 더 개방적·허용적인 성태도를 나타낸 Lee 등[3]과 Kim [16], Jang [31]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맥락임을 알 수 있었다. 노인에 대한 자신의 평소 생각이나 고민정도가 많을수록 노인에 대한 개방적·허용적인 성 태도를 보인 것과 성교육 경험이 있고 성교육 필요성을 높이 인식할수록 성인식 정도가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들을 볼 때, 노인에 대한 성교육 중재가 일반 성인들에게도 노인의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추후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노화지식과 노인에 대한 성인식( $r=.227, p<.001$ ), 노화지식과 노인에 대한 성태도( $r=.369, p<.001$ ), 노인에 대한 성인식과 성태도( $r=.299, p<.001$ )는 유의한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Yang과 Jung [17]의 연구에서도 노인에 대한 성지식이 높을수록 성태도가 허용적( $r=.467, p<.001$ )이었으며, Lim 등[18]의 연구에서도 노인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 $r=-.21, p<.01$ )임을 확인할 수 있어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성인식 및 성태도는 노인에 대한 지식함양을 통해 변화될 수 있으며[18], 노인에 대한 성지식 부족은 노인의 성에 관해 부정적인 느낌을 갖게 하고, 노인이 성에 대해 효율적인 태도를 취할 수 없게 한다는 Park과 Jung [30]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노인의 성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노인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표준 교육 프로그램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교육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반복적인 형태로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교육은 기존의 보수적이고 구태의연한 내용과 방법에서 벗어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으로 하되, 조화로운 전인적 교육을 토

대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 지역 성인의 노화에 관한 지식과 노인에 대한 성인식과 성태도를 탐색하여 우리사회 노인의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노화지식(12.12점, 정답률 48%)은 비교적 낮은 편이었고, 순 편견점수도 -28.6으로 부정적 편견이 심한 정도였다. 노인에 대한 성인식(2.99점)도 낮았으며, 성태도(4.04점)도 부정적인 경향을 나타내어 우리사회 노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아직까지 폐쇄적·부정적 편견이 높은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대상자의 노화지식과 노인에 대한 성인식 및 성태도는 노화지식이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성인식 정도가 높았고 노인에 대한 성인식이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성태도가 개방적·허용적이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우리사회 노인의 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 설정 및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성인을 대상으로 노인에 관한 올바른 성인식 및 성태도 확립에 필요한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노인의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는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수용·변화 가능하므로 우리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노인에 대한 올바른 성인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성장발달 단계별에 따른 연령별 맞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 및 일반인에게도 확대 실시할 것을 제언한다.

##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2016 Social indicators in Korea 2017. [cited March, 23, 2017],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6/5/index.board?bmode=read&aSeq=359629](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6/5/index.board?bmode=read&aSeq=359629)(accessed July, 10 2017)
- [2] Y. R. Lee, "A study of What does the Sexual Life of the Aged People have Influence on the Satisfaction of Liv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2009.
- [3] S. J. Lee, Y. S. Lee, Y. E. Kim, "The Degree of Elderly Sexual Desire and Their Attitudes Towards Sex," Korean Journal of Clinical Social Work, vol. 10, no. 1, pp. 1-21, 2013.

- [4] E. J. Chris, M. B. Susan. "Sexuality in older men with mental problem" Sex Relationship therapy, vol. 17, no. 3, pp 271-279, 2006.  
DOI: <http://dx.doi.org/10.1080/14681990220149077>
- [5] L. Lagana?, M. Maciel, "Sexual Desire among Mexican-American Older Women: A Qualitative Study", Culture, Health & Sexuality, vol. 12, no. 6, pp. 705-719, 2010.
- [6] B. Huffstetler, "Sexuality in Older Adults: A Deconstructionist Perspective" Adultspan Journal, vol. 5, no. 1, pp. 4-14, 2006.
- [7] C. Kim, H. S. Lee, "The Relation between Sex Perception, Sex Life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vol. 21, no. 3, pp. 282-292, 2010.
- [8] A. Miller, Incapacity and Sexual Relationships in the Elderly: Balancing Autonomy and Protection.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pp. 190-199, 2016.
- [9] J. K. Lee, "(A)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on the Knowledge and Attitudes of the Sexuality in the Older Adults : on the survey from the formal care-givers,"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2010.
- [10] E. H. Hwang, S. J. Shin, "Relationship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Sexuality among Community-dwelling Elderly,"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 26, no. 3, pp. 320-329, June. 2014.  
DOI: <http://dx.doi.org/10.7475/kjan.2014.26.3.320>
- [11] H. S. Pyun, "Research on the Lives of Sex of the Elderly," Journal of Community Development Society, vol. 35, no. 2, pp. 113-125, 2010.
- [12] S. tupy, M. Schumann, X. Xu, "Sexual Activity and Older Adults: Stigma, Overall Health, and Research" Journal of Positive Sexuality, vol. 1, no. 3, pp. 70-75, 2015.
- [13] C. S. Rim, M. Y. Park, "A Study on Old People's Sexual Desire Coping Behaviors and Their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Institute, vol. 52, pp. 131-154, 2011.
- [14] Y. S. Choi, Y. J. Oh, Y. J. Moon,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n Older Generations : Focusing on Intergenerational Conflict, the Elderly's Contribution and Welfare Policies for the Elderly in Korea,"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5, no. 5, pp. 228-241, 2015.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5.15.05.228>
- [15] J. H. Jung, "Effect on Aged Care Facility Workers' Acceptance Attitude Toward Sex in the Elderly Depending on Their Sexual Awarenes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5, no. 10, pp. 184-192, 2015.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5.15.10.184>
- [16] B. I. Kim, "A Comparative Study on Knowledge and Attitudes of Various Health Care Professionals Regarding Sexuality in Elders,"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vol. 9, no. 2, pp. 163-172, 2007.
- [17] J. L. Yang, M. H. Jeong, "Nurses' Knowledge, Attitude and Education Needs for Sexuality of the Elderly,"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3, no. 3, pp. 260-270, 2013.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3.13.03.260>
- [18] Y. S. Lim, J. S. Kim, K. S. Kim, "Nurse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22, no. 1, pp. 31-46, 2002.
- [19] J. S. Yun,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Sexuality Awareness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A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cheon University, 2010.
- [20] T. R. Park, "Research of the Attitudes Toward the Sexuality of the Older Persons," Journal of Social Welfare Development, vol. 12, no. 3, pp. 235-249, 2006.
- [21] E. Palmore, "Facts on Aging: A Short Quiz1," The Gerontologist, vol. 17, pp. 315-320, 1977.  
DOI: <https://doi.org/10.1093/geront/17.4.315>
- [22] H. C. Kim, "A Study on the Element Effecting on the Aged 's Recognition on Sex,"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2001.
- [23] C. B. White, "A scale for the assessment of attitude and knowledge regarding sexuality in the aged," Archives of Sexual Behavior, vol. 11, no. 6, pp. 491-502, 1982.  
DOI: <https://doi.org/10.1007/BF01542474>
- [24] Korea Gerontology Forum, A geriatric scale. Seoul; Sharing House, 2010. <http://issuensight.com>
- [25] S. H. Shin, H. J. Park, "Effect of Sexual Attitude of Aged People on Sexual Life: Moderating Effect of General Characteristic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vol. 26, no. 3, pp. 320-329, 2014.  
DOI: <https://doi.org/10.7475/kjan.2014.26.3.320>
- [26] F. Faul, E. Erdfelder, A. Buchner, A. G. Lang,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 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 41, no. 4, pp. 1149-1160, 2009.  
DOI: <https://doi.org/10.3758/BRM.41.4.1149>
- [27] K. M. Park, D. Y. Lim,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Knowledge, Attitudes Regarding Aging, and Awareness about Supporting the Aged." Keimyung Journal of Nursing Science, vol. 20, no. 2, pp. 47-57, 2016.
- [28] E. B. Palmore, "Facts on Aging: A Short Quiz(2nd Ed),"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1998.
- [29] K. M. Lim, H. S. Kim, S. K. Song, "A Study on Sexual Perception and Sexual-Education Demands of the Elderly According to Gender,"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 9, no. 3, pp. 211-219, 2015.  
DOI: <http://dx.doi.org/10.12811/kshsm.2015.9.3.211>
- [30] G. J. Park, H. M. Jung, "Effects of the Sex Education Program on Elders' Sex Perception and Life Satisfaction,"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 8, no. 3, pp. 181-192, 2014.  
DOI: <http://dx.doi.org/10.12811/kshsm.2014.8.3.181>
- [31] H. S. Jang, "A Study on Effects of Elderly's Sexual Recognition and Education Needs on Successful Aging-Focusing on Mediation Effects of Self-Efficacy", Korean Academy Of Practical Welfare vol. 7, no. 2, pp. 7-28, 2015.
- [32] H. L. Kim, Y. J. Kim, "Educational Program for Developing Aging Couples' Abilities to Deal with their Sexual Problems and Conflicts in the Sexual Life,"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 9, no. 2, pp. 43-69, 2004.
- [33] K. T. Kim, H. K. Kwak, "A Study on Knowledge and Attitude Regarding Sexuality in the Aged," Moder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vol. 13, no. 2, pp. 83-109, 2003.

제 남 주(Nam Joo Je)

[정회원]



- 2014년 2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6년 2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4년 9월 ~ 2016년 8월 : 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6년 9월 ~ 2017년 2월 : 경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7년 3월 ~ 현재 :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임신·분만, 수태 전 관리, 여성 건강, 성교육

양 현 주(Hyun Joo Yang)

[정회원]



- 2004년 8월 : 고신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석사)
- 2012년 8월 : 부산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박사)
- 2013년 3월 ~ 2015년 8월 : 경남정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5년 9월 ~ 현재 :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모유수유, 건강증진, 생식건강

박 미 라(Meera Park)

[정회원]



- 2010년 8월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6년 8월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1년 3월 ~ 2013년 2월 : 대구과학대학교 간호학과 겸임교수
- 2013년 3월 ~ 2015년 12월 : 호산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7년 3월 ~ 현재 :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신생아관리, 임신·분만, 모유수유, 성교육